

## 잡아함 68. 육입처경

날짜: 2월 23rd, 2024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672>

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.

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.

“항상 수행방편(修行方便)으로 정려(靜慮) 정진(精進)하여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하고 사실 그대로 관찰해야 하느니라. 어떻게 사실 그대로 관찰하는가? ‘이것은 색이다. 이것은 색의 쌓여 모임이다. 이것은 색의 소멸이다. 수 · 상 · 행도 마찬가지로, 이것은 식이다. 이것은 식의 쌓여 모임이다. 이것은 식의 소멸이다’라고 사실 그대로 알라.

어떤 것이 색의 쌓여 모임이며, 어떤 것이 수(受) · 상(想) · 행(行) · 식의 쌓여 모임인가? 눈[眼]과 빛깔[色]을 인연하여 안식(眼識)이 생기고, 이 세 가지가 화합하여 접촉[觸]이 생기며, 접촉을 인연하여 느낌[受]이 생기고, 느낌을 인연하여 애욕[愛]이 생기며……(내지)……이와 같이 모든 것이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생기나니, 이것을 색의 쌓여 모임이라 하느니라.

귀[耳] · 코[鼻] · 혀[舌] · 몸[身]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, 뜻[意]과 법(法)을 인연하여 의식(意識)이 생기고, 이 세 가지가 화합하여 접촉이 생기며, 접촉을 인연하여 느낌이 생기고, 느낌을 인연하여 애욕이 생기며……(내지)……이와 같이 모

든 것이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생기나니, 이것을 색의 쌓여  
모임과 수 · 상 · 행 · 식의 쌓여 모임이라 하느니라.

어떤 것이 색의 소멸[色滅]이고, 수(受) · 상(想) · 행(行) · 식  
의 소멸[識滅]인가? 눈과 빛깔을 인연하여 안식이 생기고,  
이 세 가지가 화합하여 접촉이 생긴다.

이때 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하고……(내지)……이와  
같이 모든 것이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소멸하게 되느니라.

귀 · 코 · 혀 ·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, 뜻과 법을 인연하  
여 의식이 생기고 이 세 가지가 화합하여 접촉이 생긴다. 이때  
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하고, 느낌이 소멸하면……(내  
지)……이와 같이 모든 것이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소멸하  
게 된다.

이것을 색의 소멸과 수 · 상 · 행 · 식의 소멸이라 하느니라.

그러므로 비구는 항상 수행방편(修行方便)으로 정려(靜慮)  
정진(精進)하여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하느니라.”

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, 모든 비구들은 듣고 기뻐하  
며 받들어 행하였다.

위의 관찰(觀察)경에서 설한 내용과 마찬가지로……(내  
지)……증(證)까지의 12경도 또한 이와 같이 자세히 설명하  
셨다.